

# 〈居家雜服攷〉에 나타난服色の 의미와 상징성

明知大學校 家政學科

教授 趙 孝 順

目	次
I. 머리 말	1. 宵 衣
II. 外服色の 의미와 상징성	2. 帶
1. 玄 端	IV. 童子服色の 의미와 상징성
2. 深 衣	1. 緇布衣
3. 玄 冠	2. 錦帶·總
4. 黑 履	V. 맺 는 말
5. 緇 帶	ABSTRACT
III. 內服色の 의미와 상징성	

## I. 머리 말

服色이란 形態·文樣·附屬品 등과 더불어 복식을 구성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한 나라 국민의 의복색 선택은 그 나라의 풍토내지 민족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杉本正年가 그의 〈東洋服裝史論攷〉에서 “대륙민족은 原色을 좋아하고 해양성 기후의 일본민족은 중간색을 선호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견해이다. 한 민족의 의복색은 이밖에, 그 시대의 유행이라든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상황·자기표현의 수단 등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와 상황 또는, 자신의 내면적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보이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복색이 선택되었을 때, 여기에는 그 빛깔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든가 상징성이 중요시 되기 마련이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 점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그것은 〈거가잡복고〉에 거론된 복식이 저자 자신이 살던 시대(1807~1876)에 유행하던 복식풍속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유행과는 무관하게 입는 사람의 禮와 道를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곧 이책의 저자 朴珪壽는, 經典에 의거하여 복식 개개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가며 韓民族의 실정에 맞는 服飾改良論내지 服飾復告論을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거가잡복고〉에 제시된 복식의 색깔에는, 대부분 그 하나하나에 심오한 뜻과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바, 여기서는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 II. 外服色の 의미와 상징성

外服은 남자의 복식을 말하는 것으로, 박규수는 남성의 平常居服으로 당시 유학자의 法服이었던 심의를 권유하고 있다. 또한 예복으로는 중국 周代의 예복이었던 玄端으로의 復古를 종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단과 심의의 옷색깔에 부여된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이들 옷에 갖추어야 했던 玄冠·黑履·緇帶 등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 1. 玄 端

#### 1) 玄 衣

1)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文化出版局, 東京, P. 13.

현의란 현단의 襦부분으로 가는 베에 검정물을 들여 만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의를 만들 베에 검정물[玄色]을 들일 때는 6번을 물들여야 한다고 唐代의 학자 賈公彥<sup>2)</sup>은 말하고 있다. 예컨대 한번 물들이면 옅은 붉은색[緋], 두번 물들이면 붉은색[赭], 세번 물들이면 분홍색[纁], 네번 물들이면 보라색[紺], 다섯번 물들이면 아청색[緗], 여섯번 물들이면 검은색[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규수는 이와 같은 예전 방식이 밝고 선명한 색을 잃기 쉽다는 비판과 함께 흰베에다 그냥 검은물을 들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검정물을 들이는데 사용되었던 갈매나무의 껍질, 가래나무의 열매, 참나무의 열매, 진달래를 태운 재, 물푸레나무를 태운 숯의 분말, 鐵裝液 등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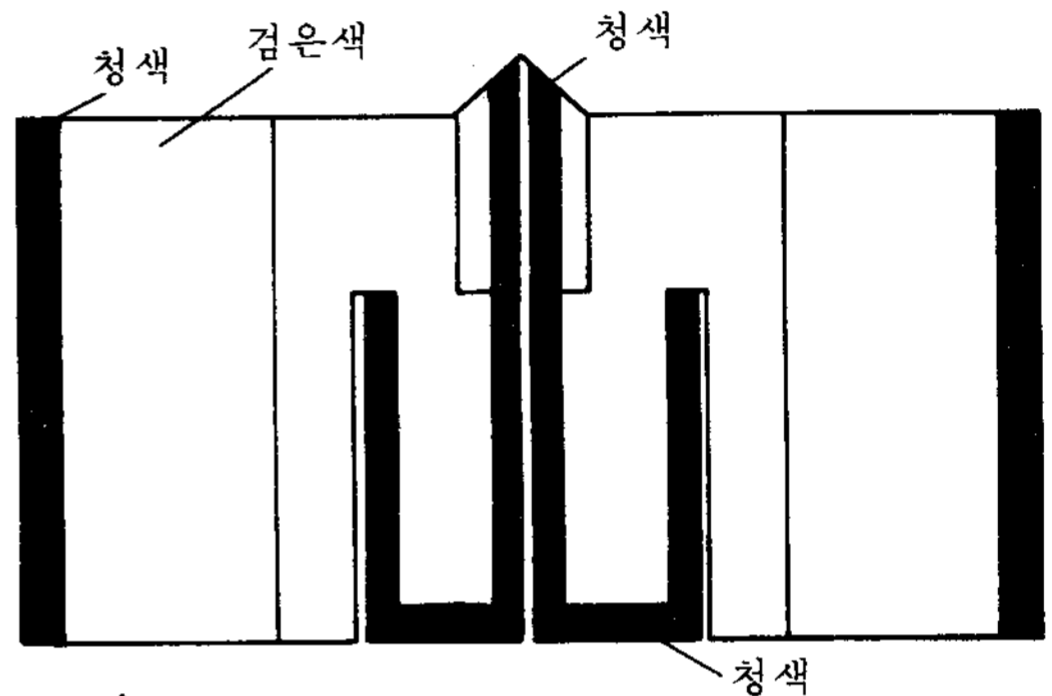
현의의 바탕색인 검은색은 五行法상 任養의 德을 상징했으며, 경전에는 하늘[天]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의미와 상징이 내포된 색이기에 현의는 고려말엽에서 조선조에 걸쳐 왕의 대례복의 하나로 中單 속에 착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조선조 말엽에 이르러 복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박규수는 일반 사서인들에게도 현의를 착용케 하여 그 빛깔이 상징하는 德을 기리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현의의 소매끝과 깃, 그리고 양겨드랑이 밑 트임부분에는 너비 2촌 가량의 장식선을 들렀는데, 그 빛깔은 청색이었다. 여러가지 색깔 중에서 특히 청색선을 두른 것에 대해 박규수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바탕색과 같은 검은색으로 할 경우 구별이 되지 않고, 붉은색은 赤心으로 神을 받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현의에는 맞지 않으며, 백색은 凶制에 가깝고, 황색은 見聞에 맞지 않는다. 다만 晉나라와 唐나라 때 士服에 흔히 쓰였던 청색선이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 현의를 꾸미기에 적합하다.

이렇듯 박규수가 현의에 청색선이 적합하다고

본 것에 대해 비록 ‘별다른 뜻이 없다’고 했지만, 기실 청색은 五行法상 木位로 동방에 해당되며 창조·新生·생식 등을 상징하는 색이었다.<sup>3)</sup> 따라서 白衣금지가 반복되던 조선조에서 일반 사서인들에게 흰옷대신 권장되던 색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청색의 이러한 의미와 상징성이 박규수의 뇌리에서 암암리에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색은 조선조의 백성들이 흰색 다음으로 선호했던 만큼 청색 염료도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예컨대 쪽[藍]잎·닭의장풀·花汁·닥나무잎·수장나무열매 등이 그 대표로 꼽힌다.



〈圖 1〉 [玄衣]

## 2) 黃裳

현단의 裳부분은 가는 베에 황색물을 들여 만든다고 하여 黃裳이라 했다. 황상을 만들 때는 앞3폭·뒤4폭으로 하는데, 길이는 衣의 길이와 같게 하고 허리에는 많은 주름을 넣어 기다란 끈 모양의 치마 허리를 달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상은 여성의 치마와 달리 양옆이 터지게 되는데, 앞뒤 가장자리와 아랫단에 너비 2촌가량의 선을 들렀다.

현단의 裳부분은 본래 〈士冠禮〉에 따르면, 계급에 따라 上士는 玄裳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잡상이란 앞은 검은색, 뒤는 황색으로 만든것을 말한다. 박규수가 이상의 3가지 색깔 중에서 특히 황색을 택했던 것은 “황색이 中正의 색으로 위로는 玄에 참람되지 않고, 아래로는 雜을 취할 皮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中正’이란 지나치게

2) 賈公彥은 당나라 洛州 사람으로 太學博士禮部侍郎을 지내고 〈周禮義疏〉50권과 〈儀禮義疏〉40권을 지었음.

3) 具住衍, 한국인의 상징세계 색Ⅱ, 일과 문화, 1990, 1, p. 7

미치지 못하거나 치우침이 없이 곧고 올바름을 뜻하는 것이니, 德을 상징하는 검은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검은색이 하늘을 의미한다면 황색은 땅을 의미하므로, 上衣를 하늘의 색으로 했으면 下衣를 땅의 색으로 하여 우주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래 황색은 중국 고대로부터 만물의 주성분이 된다는 五行 중 土에, 五方 중 중앙에, 五德 중 生出의 덕을 상징하는 土德이라고 하여 황제의 복색으로 숭상되어 왔다.<sup>4)</sup> 이같은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색은 신라 선덕왕이래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왕의 복색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게는 황색옷의 착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일반인의 황색옷 금제는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이때의 황색금제는 처음에는 물론 귀천을 가르고 상·하의 구별을 세우기 위한 조치였으나, 태종 6년 이후에 내려진 황색금제는 왕 자신도 황색을 입지 않았던 만큼, 중국의 황제복색을 절대 신성시하는 慕華觀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렇듯 事大의 예로 금지되었던 황색은 淸의 간섭을 벗어나면서부터 고종도 황룡포를 입게 되었고, 계급간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일반인에게도 혼례 등에 황색옷의 착용이 허락되었다.<sup>5)</sup> 박규수가 현의에 받쳐 입는 裳의 색을 황색으로 한 것은 바로 일반에게도 황색옷의 착용이 허락되었던 때였다. 따라서 그 동안 억압되었던 황색에 대한 갈증과 함께 황색이 내포하고 있는 심오한 의미와 상징성이 한데 어우러져 黃裳을 택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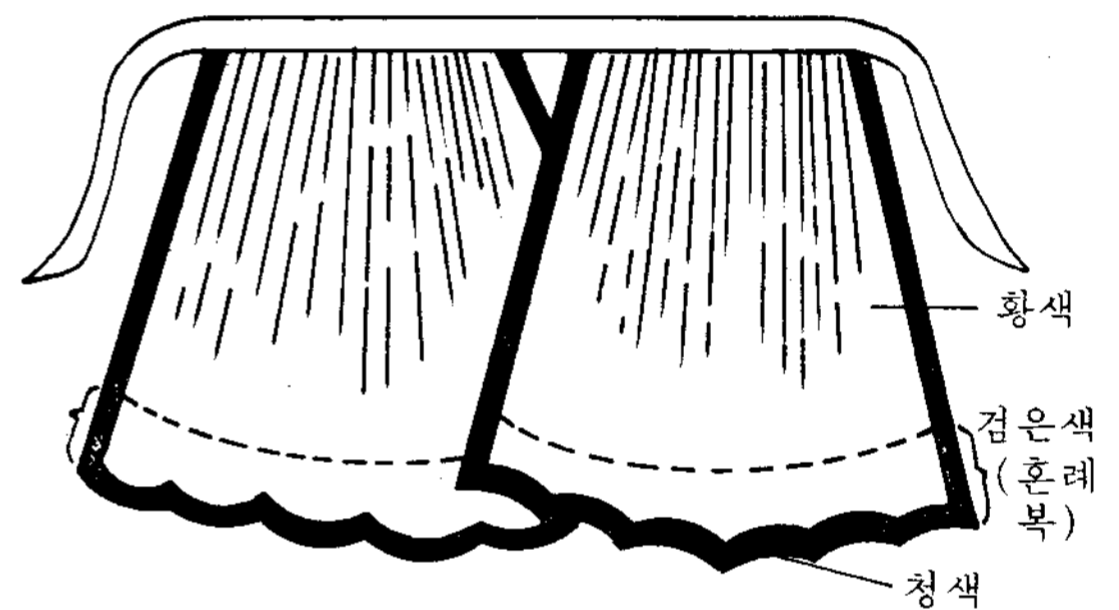
한편 황상의 앞뒤 가장자리에 두른 선은 현의와 마찬가지로 청색이었다. 이 청색선 또한 현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의미는 없었다. 다만 청색이 동방을 뜻하는 색으로 조관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고, 의와 상의 색깔이 다른 만큼 같은 색의 장식선을 두름으로써 美的인 조화를 꾀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단을 혼례복으로 할 때는, 황상에다 너비 5촌

남짓되는 검은색 베로 앞·뒤의 아랫단에 가로로 청색선 위에 덧붙여 선을 돌렸다. 이것을 緇褌라고 했는데 ‘緇’란 검은 빛의 베란 뜻이고, 褌란 裳에다 베핀다는 뜻이다. 이렇듯 혼례 때 현단의 裳 부분 아랫단에 검은천을 대는 의미와 상징을, 박규수는 각종 경전의 풀이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개 玄은 天色인데 아래로 裳에다 베풀어 褌라 하여 남자가 여자에게 내리는 것을 형상한다.

이 말은 곧 검은색은 하늘의 색이고 하늘은 남편을 의미하며, 남편은 天地創始의 원소라고 하는 陰, 陽중 양에 해당되므로 陽氣가 아래로 내려감을 형상한다는 뜻이다.



〈圖 2〉 黃 裳

## 2. 深 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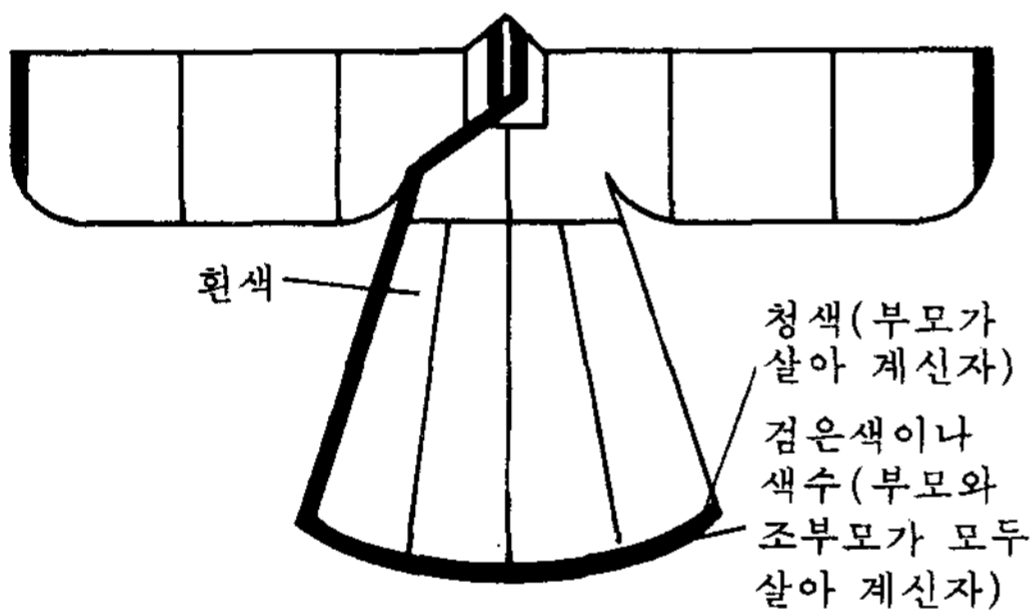
심의를 짓는 옷감에 대해 박규수는 “본래 麻布로 만들어야 합당하나 여름에는 흑 白苧布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흑 무명베도 만들어도 불가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 말에 따르면 심의의 색은 흰색, 더 정확히 말하면 素色이다. 소색이란 본래 인공적인 착색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직물색을 말한다. 이러한 소색을 선비의 연거복으로 권한 深衣의 색으로 한것은 물론, 중국 周代로부터의 전통을 그대로 이은 것이었다. 그러나 소색의 심의를 새삼스럽게 조선조말에 선비의 연거복으로 권유했다는 것은, 소색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신성성을 중요시 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밖에도 소색이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

4) 林端雲, 古代東洋服色의 比較研究, 성균관 대학교 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p. 26.

5) 拙著,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士, 1988, p. 345.

그대로의 색인 만큼 당시 선비들의 공통된 사상이었던 自然親和思想을 의복을 통해 나타내려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의에는 깃과 단 그리고 도련 들레에 선을 두르는 제도가 있었다. 너비는 깃만 2촌이고 나머지는 1촌반이었는데, 이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이에 박규수는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부모가 살아계신 자는 청색선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살아계신 자는 색수나 검은색선을 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이밖에 <옥조>에는 30세 이하로 아버지가 없는 자[孤子]는 흰색선을 두른다고 되어있으나 박규수는 이에 대대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심의의 이러한 襪제도 높은 분이 살아 계시면 많이 꾸미는 것이 孝라고 말한 同漢시대의 학자 鄭 玄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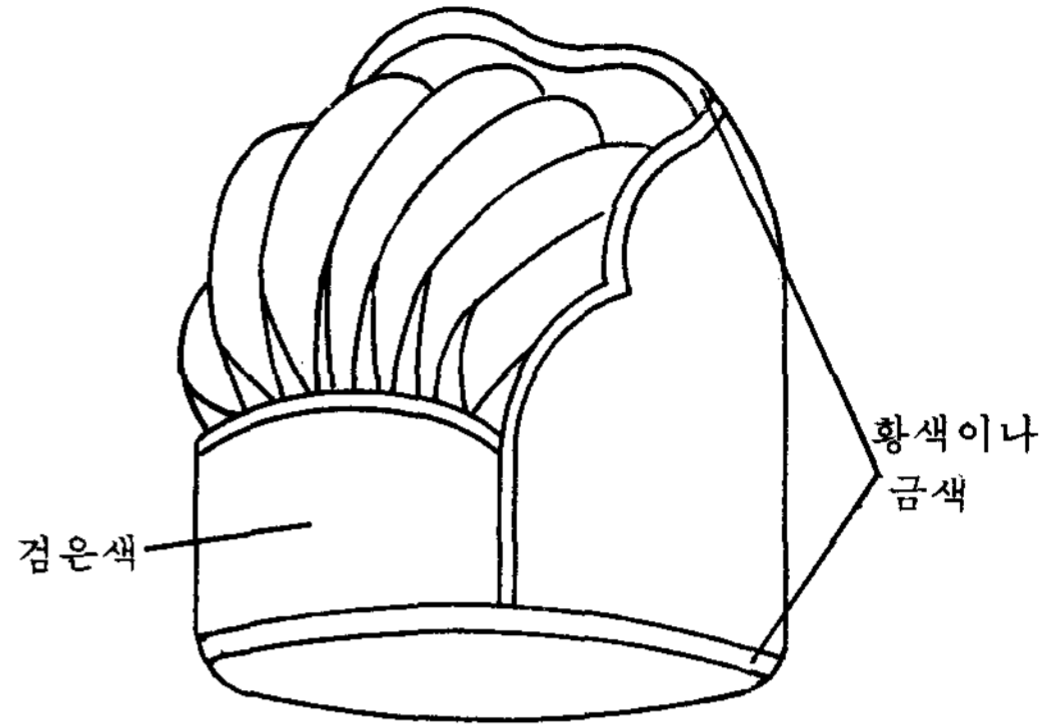


<도 3> 深衣

3. 玄冠

현관은 현단이나 심의를 입을 때 머리에 쓰도록 만들어진 관으로, 竹絲<sup>6)</sup>에 풀칠을 하여 그 형태를 만든 다음 안쪽은 풀칠을 하고 바깥쪽은 검은 紗羅로 썼다. 따라서 현관의 색은 이름 그대로 검은색이었다. 검은색의 현관에는 황색이나 金색으로 관의 양쪽 가장자리와 武의 가장자리에 너비 1~2촌 정도의 선을 들렀다. 황색이나 金색으로 현관을 장식한 것에 대해 박규수는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고 또, 황색이 中色이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현관은 德을 의미하는 검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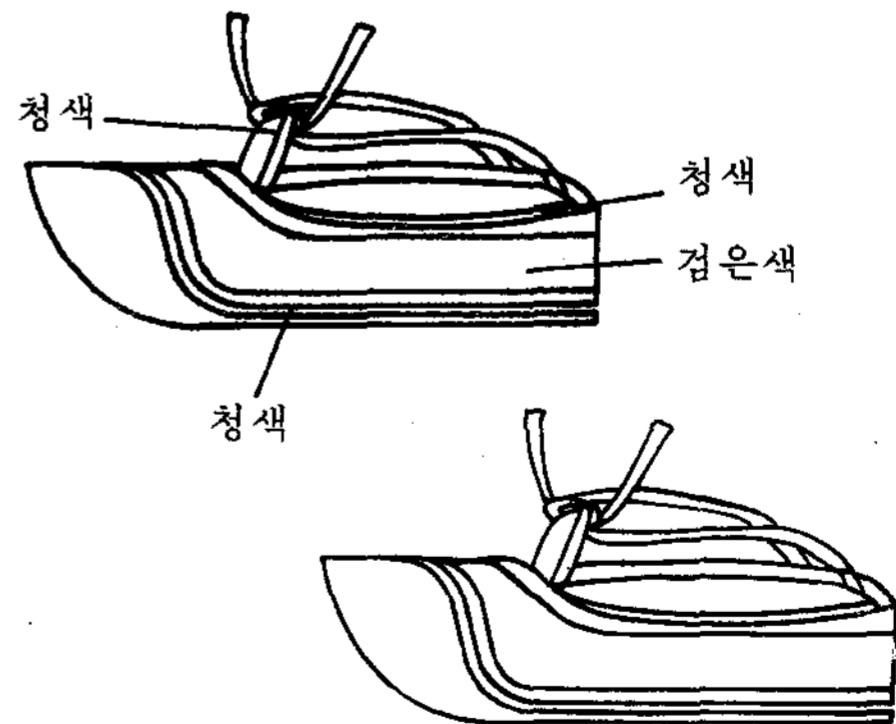
바탕에, 過不及이나 치우침이 없이 곧고 올바른 뜻을 뜻하는 황색을 더함으로써 장엄하고 엄숙한 선비의 威義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 4> 玄冠

4. 黑履

黑履는 심의나 현단을 입을 때 신어야 했던 신으로 布나 가죽에 검은물을 들여 만들었다. 따라서 흑구의 바탕색은 검은색인 셈이다. 그러나 흑구의 頭上 口邊에 布帛을 2촌가량 구부려 만든 絢는 청색이었다. 또한 흑구의 옆과 밑창을 서로 이어붙여 꿰매어 포백으로 선을 두른 總도 청색이었다. 이 밖에 흑구의 口邊에 5촌 정도의 너비로 선을 두른 純도 청색이었다. 한편 흑구의 뒷축 좌우에는 두 끈이 있어 신을 때 이 두끈을 앞으로 향해 絢의 가운데로 교차시켜 합쳐서 발등 위에다 매도록



<도 5> 黑履

6) 竹絲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묶어서 물에 담구어 물을 빨아들이게 한 다음, 칼로 그 양쪽 머리를 가는 실처럼 고르게 쪼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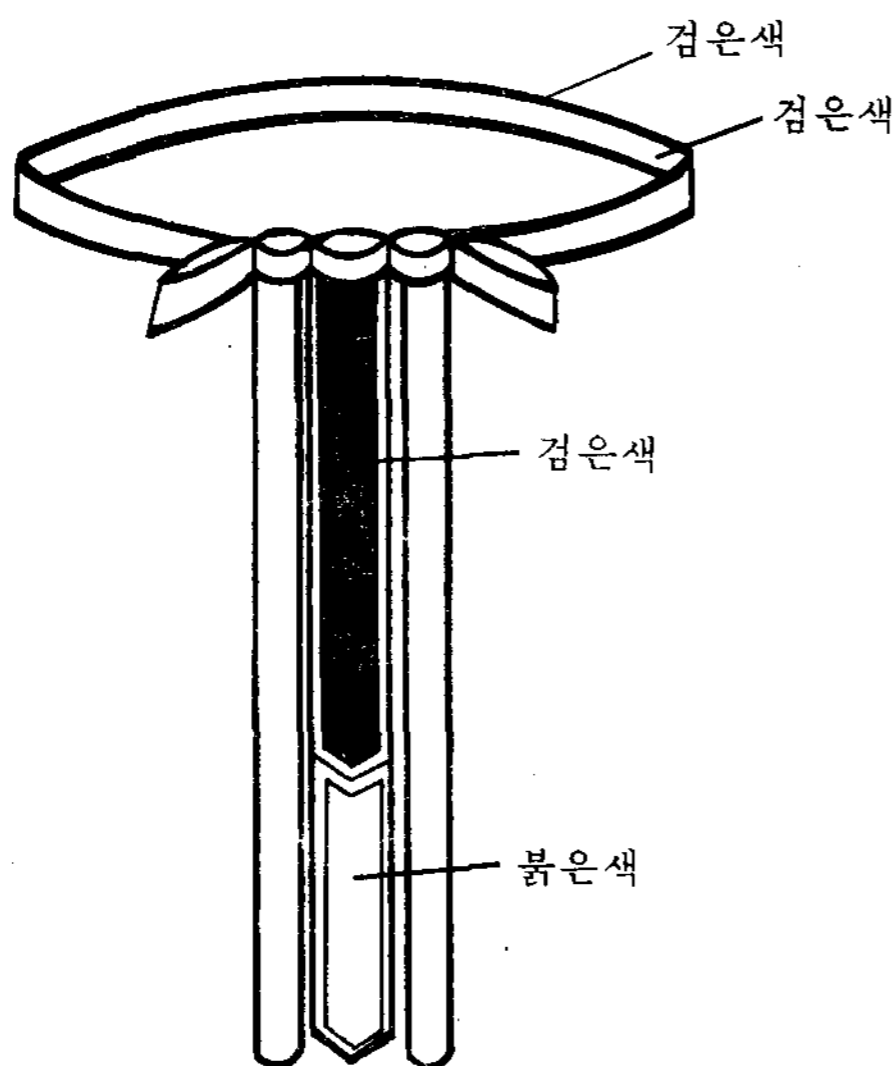
되어있었는데, 이 신끈의 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복식에 여러 색을 쓰지 않았던 앞의 예로 보아, 대개는 청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볼 때 흑구의 색은 검은색과 청색이 어우러진 셈이다. 이는 대개 玄衣의 색조를 따른 것이라 했으므로, 그 의미라든가 상징성 또한 동일하게 보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5. 緇 帶

緇帶는 현단에 두르는 대로 흰 비단과 검은 비단을 겹쳐서 만들되, 너비는 2촌이고 길이는 허리를 두를 정도였다. 검은 대의 가장자리에는 너비 5푼 가량의 검은 선을 둘렀다. 이 검은색 선은 앞서 살폈듯이 검은색이 天陽을 뜻했으므로 여기서도 남성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치대를 묶어매는組는 실로 짜서 만들었으니, 너비는 3촌, 길이는 3척8촌 정도였다. 너비 3촌 중 한 가운데 2촌은質이라고 하여 위는 검은색 아래는 붉은실로 하였다. 그 길이는 검은색 부분이 2척8촌, 붉은색 부분이 1척이었다. 질의 양 가장자리 5푼되는 곳은 색실을 늘여서 마치 장식선 처럼 보이도록 質絲와 함께 짰다. 이렇게 볼 때組의 주된 색은 질의 윗부분 색인 검은색과, 아랫부분 색인 붉은색인 셈이다. 이같은 조의 색배합에 대해 唐代의 태학박사 賈公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 6> 緇 帶

“위를 검게 하는 것은 하늘을 본받은 것이고, 아래를 붉게 하는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고 했으니, 조의 색깔의 부여된 의미와 상징성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內服色の 의미와 상징성

內服이란 여성의 복식을 말한다. 여성의 옷으로 박규수가 권장한 것은 居家 上服으로서의 宵衣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의와 소의에 들렀던 帶의 색깔에 주어진 의미와 상징성을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

1. 宵 衣

宵衣는 上衣와 下裳이 이어진 옷으로 비단이나 細布로 만들었다. 그 색은 검은색이었는데, 소의를 검은색으로 한 것에 대해 박규수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소의를 가리킴)을 장차 청색으로 한다면 猶狄에 참람할 것이요, 적색으로 한다면 鬪狄에 참람하게 될 것이며, 황색·백색으로 한다면 鞠衣·展衣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오직 흑색이 어야만 단의와 같은 색이 되어 혐의가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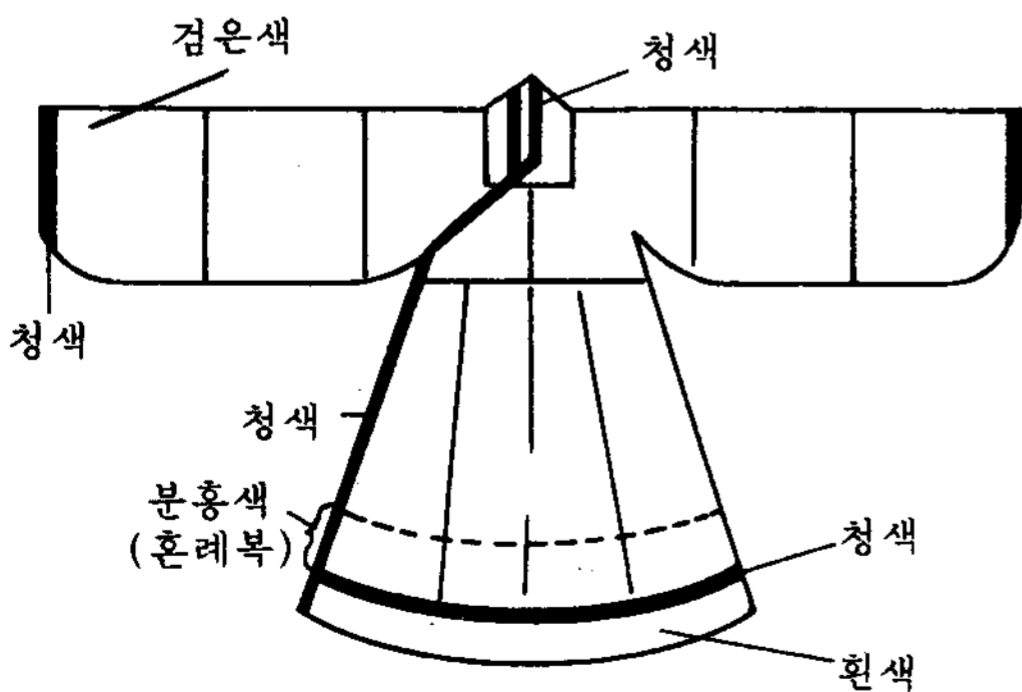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는 아내의 옷은 남편의 옷과 대칭되어야 하므로 현의와 같은 색을 한 것이라는 그의 또다른 玄宵衣 정당론이 한층 타당성있게 느껴진다.

한편 소의를 현단과 달리 衣와 裳을 잇고 또 같은 색으로 한 것은 부인이란 오로지 한결같이 德을 숭상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東漢시대의 학자 鄭玄이 <內司服> 주에서 “부인은 오로지 한결같은 德을 숭상하고 겸손해야 하므로 의·상을 잇고 그 색을 다르지 않게 한다”고 했고, 또 唐代의 賈公彥도 <혼례>에서 “의·상을 이미 잇고 반드시 색을 달리하지 않은 것은 부인이란 오로지 한결같이 덕을 숭상하고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한 것 등에서 추정할 수가 있다.

소의에는 또 外服의 현단이나 심의처럼 것과 소매끝 그리고 도련 등에 청색선을 둘렀다. 소의의

장식선을 청색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박규수 자신이“玄端說 가운데서 자세히 설명하여 靑緣을 제도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 뚜렷한 의미라든가 상징성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가하면 소의에는 남자복과 뚜렷이 다른 면이 있었다. 그것은 소의의 안을 素紗나 白絹 등으로 하되, 겉옷보다 4·5촌쯤 길게 하여 옷 아래로 나오게 했던 점이다. 이것은 “몸 감추기를 心遠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으니, 신성과 敬畏를 상징하는 흰색으로 여성의 몸을 깊숙히 감춘다는 데에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소의는 居家上服으로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실 때, 歲時·參謁·술잔을 올려 獻壽하는 慶禮 등에 착용하는 외에, 혼례복으로도 착용할 것을 박규수는 권하고 있다. 그런데 소의를 혼례복으로 입을 때에는 청색선이 둘러져있는 소의의 아랫단 위에 또다시 너비 5촌 남짓되게 가로로 분홍색선을 두르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특히 纁袷이라고 했는데, 纁이란 분홍색으로 陰氣를 뜻하며 袷이란 옷섭[任]을 뜻하는 것으로, “음기가 옷섭으로 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다. 그리하여 혼연의 너비를 5촌정도로 약간 넓은듯하게 대는 것은, “만일 좁을 경우 음기가 옷섭에 오르게 하고자 아래에 베푸는 뜻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을 가하고 있다. 결국 신랑복은 天陽의 색인 검은색을 현단의 裳 부분에 둘러 陽이 陰에 내리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신부복은 소의의 아랫단에 纁袷을 하여 陰이 陽을 統括함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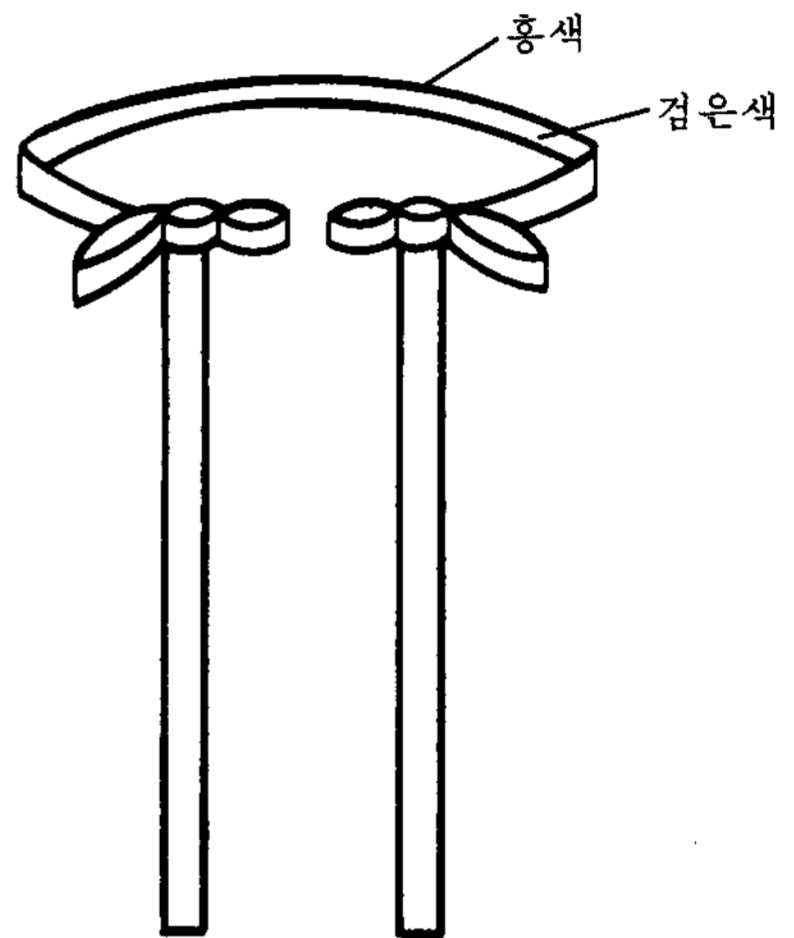


<도 7> 宵衣

2. 帶

帶는 검은 비단을 겹쳐 만들었는데, 너비는 2촌으

로 했고, 길이는 허리를 두를만하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 가장자리에는 5푼 정도의 선을 들렀는데 그 색은 紅色이었다. 대에 홍색선을 두른 것에 대해 박규수는 “그 제도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며”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여성의 옷인 만큼 美的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纁紅은 또 陰의 本色이니 이제 홍색緣을 제도로 삼는다”고 한 바, 대에 두른 홍색선은 여성 곧 陰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 8> 帶

IV. 童子服色の 의미와 상징성

사내아이의 의복으로 박규수가 권장한 것은 緇布衣였다. 또한 치포의에는 錦帶를 두르고, 머리는 總으로 묶어 두개의 상투[雙紉]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치포의·금대·총 등의 색깔에 부여된 의미와 상징성을 살피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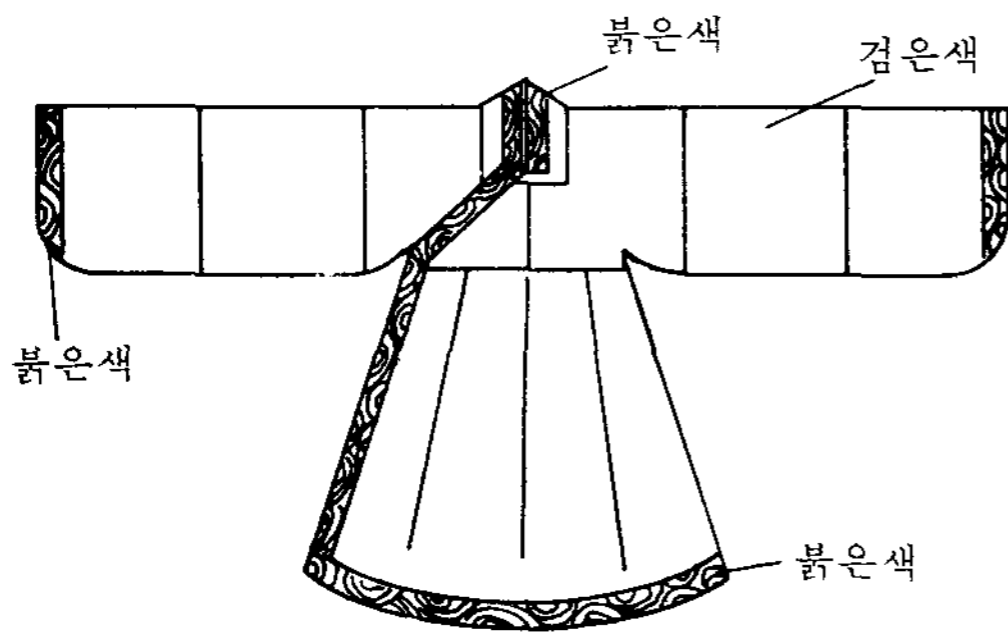
1. 緇布衣

치포의는 深衣처럼 衣와 裳을 이어붙인 옷이다. 치포의를 만들 때는 베에다 검정물을 들여서 하는 바, 치포의의 색은 글자 그대로 검은색이었다. 이렇듯 검은색으로 지은 치포의를 사내아이의 의복으로 권한 것은 ‘질박함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듯 질박한 뜻이 담긴 치포의 깃과 도련 그리고 소매끝에는 붉은 비단으로 선을 들렀다. 그렇다면 질박의 의미가 담긴 검은 베에 이와는 상반되게

화려한 붉은 비단을 조화시킨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해 박규수는 孔穎達<sup>7)</sup>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동자들은 화려한 것을 숭상하여 장차 성인이 되면 文德을 보이기 때문에 비단을 써 한편으로는 문채를 보이고 한편으로는 질박한 뜻을 보이는 것이다.

기실 <옥조>에도 道藝가 있는 處士 곧 居士는 비단띠를 두르는데, 비단을 쓰는 것은 文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볼 때 동자복을 검은 베와 붉은 비단으로 한 것은, 검은 베로서 현실적인 질박함을 상징한 것이고, 붉은 비단으로서 먼 장래의 학문의 덕을 기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 9> 緇布衣

## 2. 錦帶와 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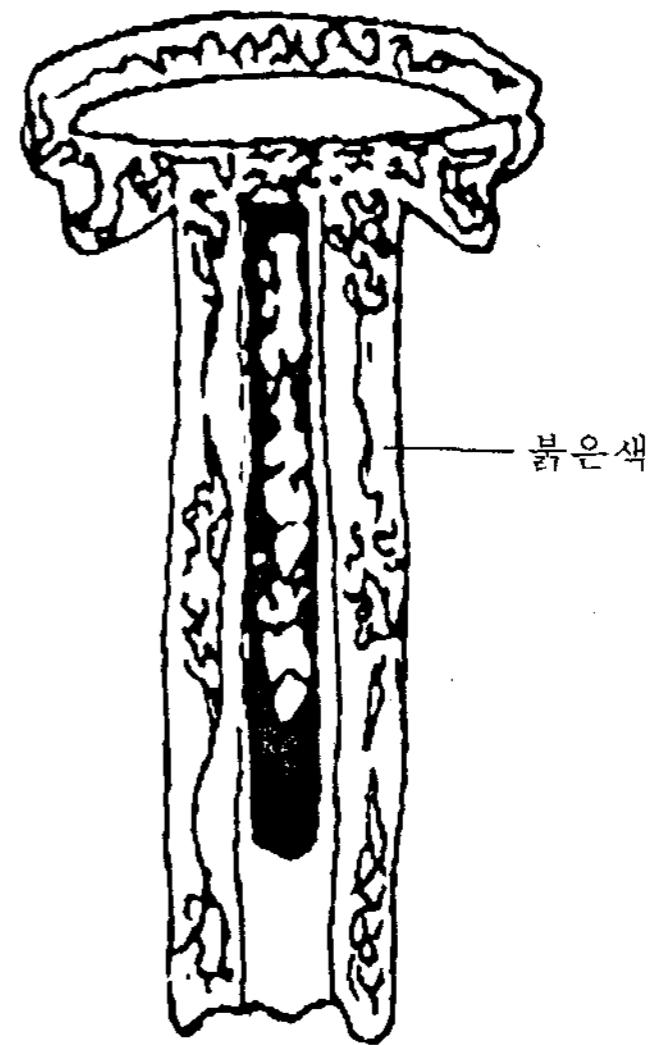
동자의 치포의에는 錦帶를 두르는데, 금대란 붉은 비단으로 만든 帶이다. 그런데 금대는 성인 남자의 緇帶와 달리 대의 가장자리에 두르는 선의 제도가 없었다. 금대에 선을 두르지 않은데에 대해 박규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자의 복식은 어른에 비해 많이 덜어야 하는데, 이미 朱錦으로 대를 하면 채색을 더 할만한 것이 없다. 이제 대에 緣이 없는 것을 제도로 하는데 경에 글이 없는 바, 간소하고 생략함을

숭상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붉은 비단으로 장식선이 없이 동자의 대를 만든 것은, 붉은 비단의 상징적인 의미 곧 훗날의 文德과, 복잡하게 꾸밈으로서 위의를 나타내는 성인복과 달리 간결하게 함으로써 躍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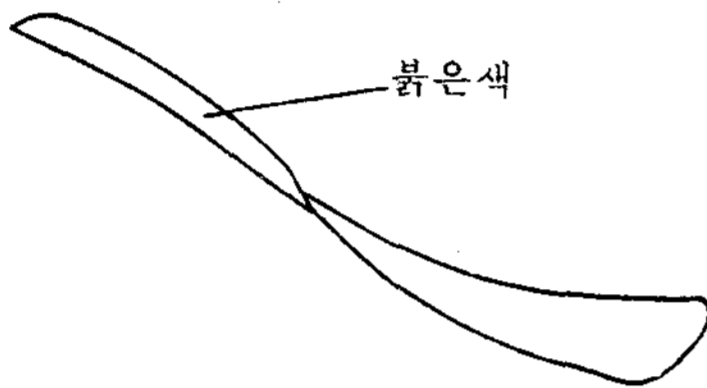
한편 박규수가 권장한 동자의 머리모양은 總으로 머리를 묶어 두 개의 상투[雙紒]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머리를 묶는 總이 또한 붉은 비단이다. 그렇다면 동자의 복식은 치포의의 장식선, 치포의에 두르는 대, 머리를 묶는 총 등이 모두 붉은 비단으로 되어있는 셈이다. 붉은 비단의 상징성은 앞서 상고한 바와 같이 훗날의 文德이었다. 그러나 사내아이의 옷에 이와 같이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학문의 덕을 뜻하는 외에, 우리 나라 고유의 赤色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이미 삼국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태양과 불의 색인 붉은색이 샷되고 악한 것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관습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季冬儺儀와 같은 흥귀를 쫓는 의식에 동자들이 붉은색 옷을 입었고, 部落祭의



<도 10> 錦帶

7) 孔穎達은 唐의 학자로 唐太宗의 칙명을 받아 <王經正義>를 지었으니, 이 곳에 인용된 글도 이 책에 기록된 것이다.

神主들은 남자임에도 붉은 연지를 칠했던 것이다.  
 8) 박규수가 권장하고 있는 동자복의 붉은색 사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곧 동자복에 붉은색을 많이 사용한 것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귀한 사내아이를 샅되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辟邪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어린아이를 낳으면 辟邪의 뜻으로, 그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붉은수수경단을 만들어 먹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도 11> 總

### V. 맺 는 말

지금까지 <居家雜服攷>에 나타난 복색의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예복으로 권장된 玄端은 衣 부분인 玄衣가 검은색으로 하늘을 뜻하는 동시에 德을 상징한 것이었고, 裳 부분인 黃裳은 황색으로 땅을 의미하는 동시에 中正을 상징한 것이었다. 현단을 신라의 혼례복으로 착용할 때는 黃裳의 아랫단에 緇施라고 하여 검은색선을 가로로 들렀는데, 이는 검은색이 天陽의 색인 바, 陽氣가 아래로 내려감을 상징한 것이었다. 또한 남성의 平常居服으로 권장된 深衣는 흰바탕에 부모가 살아계신자는 청색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살아계신자는 검은색이나 색수로 각각 장식선을 두름으로써 유교의 德目 중의 하나인 孝를 상징한 것이었다. 한편 현단이나 심의에 갖추었던 현관에는 덕을 상징하는 검은색 바탕에 中正을 상징하는 황색선을 두름으로써 선비의 威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밖에 緇帶에서는 質의 부분을 상·하로 나누어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꾸밈으로써, 위로는 하늘을 본받고 아래로는 땅을 본받게 하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여성의 복식에서 부인의 居家上服으로 권장된 衿衣의 색은 남성의 玄衣와 같은 검정색 바탕에 푸른색선이 둘러져 있었다. 이는 남편의 옷과 아내의 옷은 서로 대칭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또한 소의를 현의와 달리 의와 裳을 잇고 같은색으로 한 것은 겸손과 후덕을 상징한 것이었다. 이밖에 소의에 흰안감을 대어 그것이 소의 밑으로 4·5촌쯤 빠지게 한 것은 신성과 敬畏를 상징하는 흰색으로 여성의 몸을 깊게 감춘다는 의미가 있었다. 한편 소의를 혼례복으로 할 때 아랫단에 纁裙을 한 것은, 陰氣가 옷설음으로 오르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음이 양을 統括함을 상징한 것이된다.

동자복으로 권장된 緇布衣의 바탕색은 검은색이었는데, 이는 질박함을 상징한 것이었다. 또한 동자복식에서는 치포의의 장식선, 帶·總 등이 모두 붉은비단이었는데, 이는 훗날에 학문의 덕[文德]을 가린다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또 붉은색을 辟邪의 색으로 생각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赤色觀의 개입도 추정해 볼 수가 있었다.

<거가잡복고>에 나타난 이상과 같은 복색의 의미와 상징성은, 이 책에 거론된 복식 자체가 중국 고유의 것을 조선조 말의 실정에 맞도록 박규수 자신이 약간 변형시켰거나, 그대로 유입한 것인 만큼 다분히 중국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미 상고시대부터 중국과 끊임없는 상호교류가 있었고 또,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유교사상을 國是로 했던 만큼, 이것이 복식에 미친 영향 또한 적지않았다. 따라서 이 같은 복색의 의미와 상징성을 중국적인 요소라고 그대로 지나치기보다는,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앞서 내면적인 정신세계에 복식미의 근본을 두었었다는 服飾史의 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ABSTRACT

I observed the meaning and the symbolic characters about the color and style of clothes appearing at "GER GA JAP BOK GO" written by Kyu Soo Park.

8) 具住衍, 앞의 책, p. 8.



The black color of Hyun Eui as a ceremonial dress of man symbolizes Heaven and Virtue.

The yellow color of Whang Sang as a ceremonial dress of man symbolizes the Earth and the Impartiality. The blue or black decoration line over white ground of Sim Eui as ordinary dress of man symbolizes also Filial Piety.

In woman ordinary upper garment, So Eui, black texture edging with blue line implies the mutual symmetricity with her husband's.

Besides, white color texture lining So Eui symbolical to a Devine Nature and Homage implies also the deep concealment of feminine body.

The black ground color of child dress "Chi Po

Eui" symbolizes Naivety, and the red silk color of it's decoration line, belt and tress ornaments implies the praise of the Virtue & Learning and also "Expel the Evil" of our traditional national characteristics.

As described above, the meaning and symbolic characters about the color and style of clothes appearing at "GER GA JAP BOK GO" has a very Chinese dispositon, but it's author Kyu Soo Park modified somewhat to be in harmony with the real social situation of our Country during that latest stage of Yi Dynasty, because he was one of the prominent pragmatist at that time.